

## LG 박해민, 2년 연속 가장 영향력 있는 야구선수…"팬들에게 보답하겠다"

등록 2026.04.30 19:53:57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LG 트윈스 주장 박해민이 2년 연속 가장 영향력 있는 야구 선수로 선정됐다. (사진=LG 제공)  
2026.04.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프로야구 LG트윈스 주장 박해민이 2년 연속 가장 영향력 있는 야구 선수로 선정됐다.

LG 구단은 30일 "박해민이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에서 2년 연속 가장 영향력 있는 야구 선수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글로벌 컨설팅 기업 브랜드키가 공동 개발한 BCLI 조사모델(Brand Customer Loyalty Index)을 기반으로, 소비자 조사를 통해 각 분야의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상이다.

박해민은 야구 선수 부문 전체 항목에서 최고점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야구 선수로 뽑혔다.

특히 여성 팬층의 투표율이 압도적이었다. 박해민을 투표한 참여자의 88%가 여성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81%, 20대가 42%, 30대가 24%, 10대가 15%를 차지했다.

박해민은 구단을 통해 "팬들이 투표해 주셨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2년 연속 선정돼 기쁘다"며 "팬들이 뽑아주신 만큼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올 시즌 2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44 7타점 6도루 7득점에 OPS(출루율+장타율) 0.627의 성적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